

2021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심의 총평(1차 무용)

- 회의일시 : 2020. 12. 21(월) 14:00~18:3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스튜디오 다락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예림, 김재리, 이의신, 이지현, 정순민

2021년 공연장 정기대관 심의는 아르코 개관 40주년에 대한 극장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희망을 고려하여 대관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예술가와 극장의 동반자 관계의 설립 및 관객의 입장을 염두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아르코예술극장은 2021년 ‘아르코 파트너’ 등 극장의 자체기획 사업을 모두 폐지하고 4개 극장 외부 대관 가능일을 200여일 확대하여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작품들을 선정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공연하지 못했던 단체들의 신청과 새롭게 극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민간, 개인 단체들의 신청건수도 늘어나 신청건수가 90건 이상 증가하여 선정 가부를 결정하는 명확한 심사 기준이 필요했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은 공공극장으로서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 적합한 공연 선정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정확한 심사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1차 심의(무용)에서 심의위원들은 새로 등장한 창작환경과 공연장이 다변화, 특성화되는 최근의 경향에서 관행화된 공연과 축제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합의했다.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 비해 무용분야에는 축제와 경연 신청단체들이 많았으며, 새롭게 신청하는 개인, 민간단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랜 기간동안 극장에서 공연되어왔던 축제나 경연의 비율을 소폭 축소하더라도, 동시대성과 예술의 수월성을 갖춘 작품들과 관객에게 다양한 공연이 소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했다.

신규지원 공연에 대해 기존 대관 공연/축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했으며, 보다 많은 신규 공연/축제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신청건수 증가에 따라 높은 경합을 벌인 기간이 다수 있었으며, 이 경우 예술적으로 우수함에도 극장과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후 순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원 단체 중 해당 작품/프로그램과 극장과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위원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으나, 공연장의 조건과 성격에 부합하는 단체들로 우선 선정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평가했다. 일부 경합이 치열한 극장/일정의 경우 변경을 통해서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조율했고 이마저도 불가한 경우 불가피하게 탈락이 결정되었다.

심의의 과정은 먼저 필수제출자료 미제출, 최소 대관일(준비일 최소 2일) 충족 미비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예술적 수월성, 실행 가능성, 극장과의 적합성, 관객과 무용예술 장르에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였다. 또한,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축제들에 대해서는 단순 반복형이 아니라 세부 프로그램이 구체적이고 주제와 목적이 합당한 방향성을 띄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번 아르코 극장 대관 운영

계획에 관객 유치 및 해당 장르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있는지를
고려했다.

이번 대관심의를 통해 극장의 주체가 단지 예술가들과 창작자들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예술의 매개자들, 시민까지 확장되는 예술의 공공성을 다시 한번 환기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공극장이 극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역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극장의 운영자와 창작자, 관객이 친밀한 동반자의 관계가 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2021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무용분야(1차) 심의위원 일동